

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내지 재료에 해당하고, '담배 완제품을 포장하는 단순한 포장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E는 해당 담배 브랜드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포장 패키지에 브랜드별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표를 표시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도 그러한 디자인,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제조된 것이고, 거기에 상표까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원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완제품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라야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같이 그 부분품이나 재료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우선 구 관세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의 '수입물품'을 '완제품' 또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문언에 반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원고가 이를 수입한 것인데도 이를 수입물품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 상표권은 통상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상품 등에 체화·구현되고,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당연히 포함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원고는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를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이를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